

## 간호학생의 보건진료소 실습경험

박현주<sup>1</sup> · 장인순<sup>2</sup>

동의과학대학 간호과 조교수<sup>1</sup>,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부 전임강사<sup>2</sup>

### Nursing Students' Experience in Community Health Center Practice

Park, Hyun Joo<sup>1</sup> · Jang, In Sun<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College,

<sup>2</sup>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Korean Bible University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experience on community health centers (post)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is qualitative research using focus group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performed from November 10 to December 11, 2009. Th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22 nursing students on their subjective experience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Colaizzi's method, in which the meaningful statements were extracted. **Results:** Seven theme-clusters were identified from fourteen themes and thirty-one sub-themes. The seven theme-clusters were 1) widening of experiences; 2) feeling of warm heart; 3) feeling of satisfaction; 4) feeling of being unfulfilled; 5) difficulties; 6) new awareness; and 7) good memories. **Conclusion:** Through a variety of relationships and self-regulation in community health centers (post) practice, the nursing students may have the feeling of worthiness, new awareness of community nursing, and visions for the future to rebuild.

**Key Words:** Nursing students, Community health centers, Qualitative research, Focus groups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의 잠재능력과 개인차를 인정하고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졸업 후 간호사로서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간호실습교육은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 현장에 옮겨서 이론과 지식을 간호 대상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으로(Oh, 1974), 대상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재를 실시하며, 중재의 결과를 평가하고, 다시 조정하는 간호과정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배운 간호

지식과 기술을 실제 간호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간호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Moon, 1998). 따라서 간호교육자는 현장실습과정 및 구성을 실습 목적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회의 요구와 시대의 변천에 맞춰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및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Kim, 1997).

지역사회간호 실습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가족간호, 학교간호, 지역간호, 산업장간호 등의 각 분야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된 이론 및 개념을 실무에 적용하여 나아가 전문적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모색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간호학생들은 보건소, 학교, 산업장 중심으로 지역사회 간호 실습을 경험하며, 보건진료소 실습은 접근성이 떨어

주요어: 간호학생, 보건진료소, 질적 연구, 초점집단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ang, In Sun, Department of Nursing, Korean Bible University, 16 Danghyeon 2-gil, Nowon-gu, Seoul 139-791, Korea.  
Tel: 82-2-950-5485, Fax: 82-2-950-5408, E-mail: agape90@bible.ac.kr

투고일 2010년 3월 31일 / 수정일 2010년 6월 14일 / 개재확정일 2010년 6월 17일

지고 관심도,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많이 경험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보건진료원은 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근거로 양성, 배치하게 되었으며, 2006년 12월 전국에 1,911개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농어촌 유형별 지표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진료소가 위치하고 있는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8.3%로 도시의 경우 10.9%에 비해 17.4%나 높은 것으로 즉, 초고령 사회를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나(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노인들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발이 중요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식과 소득수준의 변화로 인해 의료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져 양질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에 그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간호학 교육과정에서는 많은 시수를 임상간호 중심으로 실습이 구성되어 있는 형편이며, 지역사회간호 실습은 실제 지역사회 상황에서 전반적인 이론교육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학습의 기회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일차건강관리와 건강증진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Sung, 2003), 보건소, 산업장, 학교로 그 실습지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보건진료소 실습은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실상 파악과 농어촌 지역의 노인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과 대상자의 지역과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환경적 특성과 상황적인 면을 통합적으로 관찰하고 그들의 문제에 따른 맞춤식 뿐만 아니라 거시적 접근의 간호과정 적용 등을 깨닫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실습 영역의 확대 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보건진료소 실습 고유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시대적 흐름에 변화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역할 및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문제를 최일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인력으로서의 보건진료원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보건진료소 실습 경험을 나누어 간호학생의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보건진료소 실습 현장에서 간호학생들의 체험을 탐색하여 그들의 체험을 이해하고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연구된 간호학생의 실습경험은 임상실습경험(Moon, 1998; Sohn, Chung, Chung, Park, & Lee, 1997; Suh, Kim, & Chon, 1996), 학교보건 실습경험(Woo & Park, 1995), 지역사회간호 실습경험(Han & Shim, 1999; Kim, 1997; Sung, 2003), 보건소 방문간호 실습경험(Oh,

2003 ; Park, Lee, Min, & Park, 2004) 등으로 보건진료소 실습경험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점집단 연구방법의 장점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가능한 한 다양한 느낌이나 경험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참여자의 의견이나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집단 상호작용으로 그들 서로간의 의견과 경험 속에서 만들어내는 비교는 복잡한 행동과 동기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자원이 된다. 또한 집단토의를 통해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특정 주제에 집중된 다량의 잘 조직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Kim, Kim, Lee, & Lee, 1999).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초점집단 연구방법은 간호학생의 보건진료소 실습 경험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점집단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간호학생의 보건진료소 실습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 연구 방법

### 1. 연구참여자

보건진료소 실습 경험이 있는 일개 전문대학 간호과 2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의도표집 하였다. 총 참여자는 22명으로 남학생 9명, 여학생 13명이었다. 참여자는 한 보건진료소에서 1주간 실습을 하며, 참여자가 포함되었던 보건진료소는 총 4개이었다.

### 2. 초점집단 구성

초점집단은 동질성 확보와 분할 전략(Kim et al., 1999)에 따라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집단 간 차이를 통해서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의 크기와 수는 실용적, 현실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6~10명 정도의 크기와 3~5개 집단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Kim et al., 1999) 이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집단 1개, 남학생 집단 1개, 남녀 혼합집단 1개를 구성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에 다른 자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각 초점집단마다 전 참여자들이 동의하는 면담일시를 정하여 시행하였다. 면담일시 및 장소는 외부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여섯시에서 여덟시 사이에 간호과 강의실로 하였다. 면담 시에는 저녁시 간임을 고려하여 도시락, 차, 다과 등을 준비하였다. 각 면담 시에는 연구자 2명이 참여하여 면담을 이끌고 녹음 및 메모를 하였으며, 녹음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받았다. 집단 면담 끝에는 인도자와 보조자가 면담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진술이나 요약에 대한 현장노트를 발표함으로써 참여자의 말을 적절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집단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연구자들이 면담 도중 떠오른 중요한 주제나 내용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이 내용을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집단 면담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1달간, 한 집단 당 1~2회씩 시행하였다. 1회당 집단 토의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초점집단 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주 질문: “간호학생으로 보건진료소 실습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보조질문: “보건진료소 실습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습니까?”

“보건진료소 실습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진료소 실습에서 관찰한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보건진료소 실습은 임상실습, 타 지역사회 실습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 4. 자료분석

참여자의 진술과 현장노트의 기록내용에 대한 분석은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분석 절차를 따랐다. 먼저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연구자가 녹음테이프를 반복해 들으면서 필사를 하였고, 필사된 기술을 여러 차례 읽었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기술에서 연구현상과 직접 관련되는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낸 다음 그 진술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 때 참여자의 의도를 명확히 묘사하되 원래의 진술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였다. 도출된 의미를 하위주제와 주제, 주제모음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자에 의한 분석과 비교함으로써 분석된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면담시작 전에 보건진료소 실습에 대한 연구자 간의 선이해와 가정에 대한 토의를 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부를 살피며 도출된 주제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연구현상과 관련시켜 기술하였으며 기술된 주제와 중심의미 및 예제로 사용된 참여자의 진술을 연구참여자 3인에게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자에게 면담 도중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개인적인 정보,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결과에서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이상의 내용을 서면화된 동의서로 작성하였다.

### 6.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면담 시작 전 연구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면담 중간에도 참여자들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하는 동안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진술의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도출된 의미와 주제를 참여자에게 보여주어 참여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담결과를 심층 기술하여 초점집단 간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였고, 각 참여자 및 그룹간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에서는 연구자간 분석과 논의를 통해 일차분석을 거친 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자에 의한 분석과 비교함으로써 분석된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면담시작 전에 보건진료소 실습에 대한 연구자 간의 선이해와 가정에 대한 토의를 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 연구결과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보건진료소 실습 경험은 40개의 구성된 의미에서 31개의 하위주제가 형성되었고, 다시 14개의 주제로 조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개의 주제모음을 구성하였다(Table 1).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경험은 감성적인 측면으로 여학생 집단에서는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에 대한 주제의 강도가 더욱 강하게 표현되었다.

### 주제모음 1. 경험 넓히기

#### 1) 자율적인 실습

참여자들은 병동 간호사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왔던 임상 실습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방문 간호와 보건교육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학습하게 되었고, 자신이 기계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하였다.

실습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다음 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더욱 더 할머니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발마사지 법, 만성질환 예방법도 알아보고 갔어요. (능동성)

정해진 시간에 쟁탕하고 심부름하면서 왔다갔다 시간 보내고 환자들과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그런 실습에 질려 있었는데 보건진료소 실습은 내가 기계가 아닌, 뭔가 생동감이 넘쳤어요. (생동감)

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러한 간호행위들을 학생의 입장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야 하는데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다.

처음 방문간호를 하게 되었을 때는 너무 떨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해보지 못 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지도해주시는 선생님 없이 오로지 나만의 힘으로 어르신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문을 해서 건강 체크를 하는 것이었기에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움)

어르신들을 대하여 우리가 직접 답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가면서 책임감이 커졌던 것 같아요. (책임감)

#### 2) 전인적인 실습

또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역민들과 깊이 있는 면담

을 하면서 그들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가족 관계, 환경, 내적인 심경까지도 들어주고 함께 나누면서 전인적 간호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실습에서는 단순히 질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간호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느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습이었다면 이번 실습은 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이유, 주변 환경,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 등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총체적 접근)

### 주제모음 2. 인간의 정을 느낌

#### 1) 관계형성

참여자들이 가장 감명 깊게 느낀 부분은 지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인간의 정을 느낀 데 있었다. 처음 보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허물없는 이웃처럼 자신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시골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에서 친근함이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서툴고 작은 간호행위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는 지역민들의 태도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을 대할려니깐 어색하고 위축 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친근하게 대해 주셨고 이것 저것 먹을 것도 잘챙겨주셔서 이게 시골의 정이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어요. (친근함)

처음 보는 학생들을 번거롭다고 여기지 않고 외롭고 적적하시다고, 또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어르신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려요. (감사함)

#### 2) 노인에 대한 연민

특히 가정방문을 통하여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일손이 되어주면서 그들과 정이 들었고, 떠나올 때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노인들에 대한 연민으로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였다. 또한 의료시설을 비롯한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고생하는 노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할머니와 강아지랑 같이 놀고 할머니 일도 도와드리고 하니까 돌아 갈 때는 슬펐어요. 할머니도 정이 많이 들었는지 가지

**Table 1.** Experience on Community Health Centers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me cluster	Theme	Sub-theme	Formulating meaning
Widening of experience	Independent practice	Ac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ctively begin to study and find works to do</li> </ul>
		Liveliness F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gin to have liveliness in home visiting and public health education</li> <li>Felt some fear when delivering independent nursing practice at the first time</li> </ul>
Feeling of warm heart	Holistic practice	Responsi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lt responsibility while working out independent public health education and consultation</li> </ul>
		Comprehensive appro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was a comprehensive practice helping to understand more about human-beings, environment, health, and diseases.</li> </ul>
Feeling of satisfaction	Making relationship	Familia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lt intimacy when the local people welcomed with warm-heart</li> </ul>
		Gratit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lt gratitude when local people gave responses with warm-heart</li> </ul>
Unfulfilling feeling	Sympathy for elders	Heart-breaking of par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lt heart-breaking when parting with elders living lonely</li> </ul>
		Low level of living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lt sympathy for elder living in a low living environment</li> </ul>
Difficulties	Learning	Communications meth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ained communications method while doing interviews with local people</li> <li>Gained relationship making method while interacting with local people</li> <li>Gained living wisdom while exchanging dialogues with local people.</li> <li>While having human relations with local people, it come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nursing is attention and love</li> </ul>
		Living wisdom Essence of nursing	
Difficulties	Growing up	Feeling prou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lt proud when the local people gave positive responses</li> <li>Felt proud for being a help hand</li> <li>Felt proud for getting a respect as a health-care provider.</li> </ul>
		Feeling confid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ained confidence in communications while delivering frequent visitation nursing</li> <li>Gained confidence in delivering independent practice through public health education</li> <li>Had a chance to be reflective for showing bad and unkind attitude toward subjects while performing clinical practice</li> </ul>
Difficulties	Limits on capability	Chance for reflection	
		Limits of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lt uncapable when coming down to a thought that no realistic nursing help was given to the local people</li> <li>Felt under-performed when understanding that interviews were amateurish and simple</li> <li>Felt below the best for being the first time and not knowing the exactly how to do it</li> </ul>
Difficulties	Limits on education system	Not doing the best	
		Triviality of practice Unprepared apparatus and equip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cause the practice was focused around home visiting, it was missing variety of community health nursing</li> <li>It was not enough nursing because apparatus was out of order or out of supply</li> </ul>
Difficulties	Vague feeling	Feeling of outcas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lt outcasted without having any idea about what to do specifically or how to do</li> </ul>
	Discomfort	Poor practice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isiting distance and getting food were uncomfortable</li> </ul>

**Table 1.** Experience on Community Health Centers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Continued)

Theme cluster	Theme	Sub-theme	Formulating meaning
New awareness	Deleting prejudices	Importance of public health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derstood the importance of public health care in the community</li> </ul>
		Variety of nursing in local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liminated prejudices about community health post as being a nothing-to-do place</li> </ul>
	New images of nurses	Support role in local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ound out that nurses are one of the important role makers in the community</li> </ul>
		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lt strength from the health-care providers work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health post</li> </ul>
		Independent health care provi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like the clinics, it could be observed that independently working nurses perform diagnosis and give prescriptions.</li> </ul>
	Attention to career	Planning for the future care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cognized that there are several career paths for the nurses</li> <li>Discovered a nurse as one's own ideal image model</li> </ul>
	Good memories	Comfo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lt comfortable with the local people responding with warm-heartedness</li> <li>The local public health care center was kind and gave a being home-like feeling</li> <li>There was no hard-feeling on making careless mistakes</li> <li>Felt relaxed because there is no fixed schedule</li> <li>Felt like having a picnic when visiting country sides</li> <li>There were fun things just being in the rural area</li> <li>other than nursing practices</li> <li>After all, it gave a feeling of humanity and love for the nature</li> </ul>
		Relaxing	
		Fun	
		Longing	

못하게 커피를 끓여 줄 테니 먹고 가라고 하시고..... 혼자 두고 오기가 마음 아팠어요. (이별의 아픔)

아침 아홉시 마을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추위에 떨고 계셨어요. 장을 보고 일찍 집에 가려고 해도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두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안타까웠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악한 환경)

여자들은 간호가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아!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 하는 구나'라고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개인적인 히스토리 같은 걸 묻는 시간도 많고 더욱 세세하게 전반적인 모습을 사정할 수 있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니까 더욱 더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소통 방법)

내가 몰랐던 것,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 어르신들이 말씀해주시는 얘기 속에 살아가는 얘기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 말고, 마음으로 나누고 정을 느끼고 하는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들려줬어요. (삶의 지혜)

보건진료소 실습은 내게 간호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면서 사랑이 약이 된다는 점과 관심이 얼마나 큰 약인지 깨달았습니다. (간호의 본질)

### 주제모음 3. 보람

#### 1) 배움

보건진료소 실습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실습하고 배운 것은 의사소통 방법이었다. 가정방문이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지역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배웠던 의사소통 기법을 충분히 적용하고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소통에 대한 배움과 자신감으로 참여자들은 지역민들의 생활현장에 접근하기가 쉬워졌으며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책에서는 배우지 못한 다양한 삶의 지혜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다.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지역민들과의 인간적 교류 속에서 참

#### 2) 성장

참여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처음으로 수행한 보건교육에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게 되고 의료인으로 대해주어

간호사가 된 듯한 뿌듯함을 느꼈으며 여러 차례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사람을 대하고 의사소통하는데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 자료로 교육하였는데 처음 하는 것이라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모두들 적극적으로 따라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너무 뿌듯하였습니다. (뿌듯함)

처음 가정방문 할 때 너무 떨렸는데, 어르신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건강 체크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할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어떻게 인사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아지게 되고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자신감)

또한 지역민들과 진심으로 교류하는 보건진료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어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간접 체험이 자신을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어르신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귀찮을 만도 한데 한 분, 한 분 전부 웃으시며 대답 다해드리고 어르신들이 간단히 질문을 하였을 때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병원 실습 할 때 어르신들이 이것저것 부탁하면 대답은 네 하면서도 귀찮아하였던 것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반성의 계기)

#### 주제모음 4. 아쉬움

##### 1) 역량의 한계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해보는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가정방문 등의 간호수행을 통하여 뿌듯함과 자신감을 얻게 된 이면에 지역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이 부족했다고 느꼈다. 또한 보건진료소 실습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실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공부하고 준비하여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물었을 때 내가 아는 게 많이 없고, 뭔가 많이 가르쳐드려야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 가지고 도움이 못 되 드린 게 너무 아쉬웠어요. (지식의 한계)

막상 가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혈압을 재드리고 혈당을 측정하고 간단하게 건강 상담을 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뭘 준비

해야 될지도 몰랐고 너무 준비를 못해 가서 아쉬웠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함)

##### 2) 교육체계의 부족

또한 실습기간 동안 보건교육이나 가정방문 이외에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학습과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간도 짧아 충분하지 못한 실습이었으며 학교에서 배당받은 실습기구가 부족하고 고장인 경우도 있어 미리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좀 더 교육적인 실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혈압, 혈당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에서만 할 수 있는 지역조사, 마을조사 등을 직접 참가해서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습내용의 단순성)

우리가 받은 지역간호 세트에는 혈압계 두 개, 혈당체크기 한 개가 들어 있었는데 이걸로는 물품이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진료소의 물품을 빌려 방문간호를 나갔어요. 내년 후배들의 실습 때는 실제로 많이 쓰는 혈압계와 혈당 체크기를 더 보충해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습기구의 고장 및 부족)

#### 주제모음 5. 힘듦

##### 1) 막연함

새로운 경험으로 인한 배움과 보람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율적인 실습에 따른 어려움도 같이 경험하게 되었다. 일정한 틀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구체적으로 짜여 있었던 임상실습의 형태와는 달리 큰 과제만 주어질 뿐 자신이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처음으로 접했을 때 참여자들은 마치 벌판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보건진료소에는 그날그날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스케줄이 딱히 없는 것 같고.... 어디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느낌, 그냥 막연히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던져진 느낌)

##### 2) 불편함

실습 중 가장 불편하였던 점으로는 실습지가 교통이 열악한 시골이라 출퇴근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하루에 3~4회 운행하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도시락까지 준비하느라 실습이외의 일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였다.

보건진료소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왕복 여섯 번이나 타야했어요. 버스비도 버스비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하루 네 시간 정도 버스에서의 시간이란 많이 아쉽고 피로에 더욱 사무쳤어요. (열악한 실습지 여건)

## 주제모음 6. 새로운 인식

### 1) 편견지우기

참여자들은 책으로만 배우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차보건의료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동안 치료위주의 의료에만 학습되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즉, 보건교육과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역민의 건강을 사정하고 건강에 대한 자각을 가지도록 하는 예방중심의 일차간호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다.

주위에 병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보건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자각을 얻어가도록 하고 약도 진료소 안에서 타가면서 정말 진료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는 별로 할 일이 없으며 시골에서 여유롭게 시간만 보내면 되는 곳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실습에 임했으나 실상은 간호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기에는 오히려 임상보다 더욱 바쁘며 새롭고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대한 영역의 일이 있는 곳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솔직히 실습하기 전에는 진료소는 정말 할 일 없고, 편할 것 같았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소장님의 방문간호도 하시고, 진료도 보시고, 자료정리도 하시고, 뭐 맘만 먹으면 할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사회간호의 방대함)

### 2) 색다른 간호사의 모습

참여자들은 지역민의 생활과 지역사회의 모든 일을 궤뚫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보건진료원의 모습에서 의료인 이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보건진료원은 지역민의 다정한 이웃이며, 따뜻한 어머니이자 활기찬 딸로서

지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역사회의 베품목과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혼자서 지역사회의 방대한 일들을 함에 있어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도 수용하고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진 존재였다.

소장님의 모습은 한 사람의 의료인이라기보다는 든든한 베품목이자 마을 어르신들의 딸같이 친숙한 모습이었어요. 동네의 살림살이 궤뚫고 집안 이야기도 같이 하시며 의료인 이상의 역할이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베품목)

많은 업무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인데 어떠한 상황에 서라도, 마을 사람들이 이런 저런 불평을 늘어놓더라도, 많은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끗끗이 해결해나가는 강한 모습, 강심장이 보였습니다. (강인함)

특히 임상간호사는 달리 대상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직접 약을 처방하는 모습에서 독립된 의료인으로서의 당당함을 느꼈으며 이는 간호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난 보건진료소장님을 보면서 참 자랑스러웠어요. 의사의 오더 없이는 수액 하나 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보건진료소에서 만큼은 당당하게 선생님이 진찰하고 처방하셨어요. (독립된 의료인)

### 3) 진로에 대한 관심

보건진료원의 역할을 관찰하고 체험함으로써 참여자들은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남학생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 여학생들은 모성애에 바탕한 간호정신으로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꼭 병원에서만의 간호사가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고, 간호사의 임상에서의 업무 말고도 다양한 업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도울 수 있고 몸담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내 적성에 맞는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미래 설계)

## 주제모음 7. 즐거운 추억

### 1) 여행 온 기분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에 비해 간호사와의 관계가 덜 엄격

하며 지역민들도 손자, 손녀같이 귀엽게 대해주어 할머니 집에 놀러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실습 일정 또한 시간에 맞추어 해야 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참여자들은 가정방문을 하면서 시골풍경을 감상하며 학업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실습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내용도 웃음치료, 오락요법과 같이 건강의 예방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실수에 대한 부담감 없이 지역민들과 편하게 어울려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해보는 감파기, 소여물 주기, 문풍지 바르기와 같은 의료이외의 활동들이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다양한 에피소드와 이러한 자신들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실습과정에서 마치 여행 온 듯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가정에서의 편안한 환경도 주민들과 더 편하게 어울릴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병원과는 또 다른 분위기, 뭐랄까. 오랜만에 시골 친척집에 놀러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편안함)

챠팅 시간에 압박받지 않고, 지나다니시는 주민들과 인사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혈압측정..... 갑갑한 병원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 마시며 가을정취도 느끼고 여유롭게 즐기면서 실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로움)

보건교육 중에 할머니들과 준비해왔던 율동을 같이 하며 사진 찍었던 것도 기억나구요. 또 주위에 열려있는 감도 따먹고 시골에 온 기분이라서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음)

이렇듯 참여자들은 보건진료소 실습을 통하여 학습 이외에도 아름다운 풍경과 시골의 훈훈한 인정, 다양한 체험과 에피소드 등으로 실습 후에도 다시 찾아 가고픈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즐거운 추억을 가지게 되었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또 거기 바닷가가 너무 예뻐서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다시 오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정이 넘치고 훈훈했던 진료소였습니다. (그리움)

## 논의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보건진료소 실습 경험은 경험넓히기, 인간의 정을 느낌, 보람, 아쉬움, 힘듦, 새로운 인식, 즐거운 추억의 주제모음으로 구조화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주제모음인 ‘경험넓히기’는 주민대상 보건교육과 방문간호의 자율적인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에게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때론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는 간호학생의 실습에 활력소가 되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문화적,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의 모습들을 관찰함으로써 대상자의 문제를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전인간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이 되었다. 또한 자율적인 간호활동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이전 임상실습과는 다른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는 간호학생의 방문간호 실습에 대한 두려움(Oh, 2003; Han and Shim, 1999)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상실습에서 느끼는 간호중재 시 실수에 대한 두려움(Keehammer, Hart, & Keck, 1990; Pagana, 1988; Sohn et al., 1997)과는 다르며 오히려 낯선 환경과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볼 수 있었다. 간호학생의 실습에 있어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여러 연구(Mahat, 1996; Moon, 1998; Oh, 2003; Sohn et al., 1997)에서도 확인된 주제로서 관련 실습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구성하여 역할극과 같은 모의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현장실습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습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지역민들의 친근함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정’으로서 Park and Lee (2002)의 간호학생의 보건소 실습 경험의 주제인 ‘정감이 생김’과 동일한 것으로 ‘정’은 사람과의 교류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을 촉진시키고 대상자를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며 간호사로서의 기본 자질인 감성적 능력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인간의 정을 느낌’은 임상실습 경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주제로서 이는 지역사회 간호 실습이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통찰력과도 구분되며 대상자에게 편안함과 도움을 주는 감성(Van Manen, 1990)을 보편적인 요소로 하는 인간관계 중심적이며 윤리지향적인 인본주의적 돌봄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는 측면에서 보다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보건진료소 실습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의사소통과 관계형성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실습 경험에 대한 Kim (1997), Han and Shim (1999)의 연구결과와는 동일하지만 가정방문의 의미가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 제공(Oh, 2003)과 대상자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Park et al., 2004)으로 나타나 같은 실습 내용이라도 학생들이 느끼고 수용하는 영역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보건교육과 가정방문을 수행하고 난 후의 뿌듯함과 자신감은 Park 등(2004)의 연구에서도 방문간호의 보람으로 도출된 의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이전의 힘들었던 임상실습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인 실습경험은 간호학생의 올바른 지각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Dunn과 Hansford (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네 번째 주제모음인 ‘아쉬움’은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간호 문제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역량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쇠헌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는 지역사회간호 실습이 다방면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Han & Shim, 1999; Kim, 1997)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총체적인 자가 평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자발적인 학습에 대한 각성과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방문간호의 반복적인 수행으로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즐기는 한편 단조로운 실습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Moon, 1998)에서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지루함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진단이나 역학조사를 비롯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동기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보건진료소 실습의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지역사회와 대상자의 문제를 보다 거시적으로 파악하며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실습 형태에서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업무와 방법에 대한 혼란으로 막연하게 던져진 느낌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Sohn 등(1997)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정서적 어려움으로, Blainey (1980)는 실습지도 시 학생의 불안에 대한 인식과 조절이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증가시켜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또한 실습지의 지리적 여전 특성상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통, 첨식 등의 실제적인 불편함은 학생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인식’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단계로서 지역사회 간호가 거시적이며 예방중심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스스로 하고자 한다면 임상의 업무보다 더욱 방대하며 오히려 현재 보건진료원 한 명의 인원으로는 기본적인 간호조차 수행하기에 벽참을 파악하

였다. 또한 방문간호를 일차보건의료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간호활동으로 인식하였는데, Oh (2003) 연구에서도 방문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게 하는 실습경험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들은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원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이상적인 간호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졸업 후 폭넓은 진로선택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의 방문간호 경험에 대한 Oh (2003)와 Park 등(2004)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주제로써 이는 간호학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역할 모델을 필요로 하며(Suh et al., 1996), 역할 모델이 간호사로서의 자아상과 진로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실습은 거리와 교통으로 인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함과 여유로움,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즐거움으로 학생들에게 잠시 나마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Sohn 등(1997)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은 신체적 어려움, 지식과 기술의 부족함, 실습현장에 대한 실망과 회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성장을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임상에서 환자 개개인에 초점을 두고 간호하듯이 학생들이 느끼는 경험도 개개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결과는 인간의 정, 자율적인 실습, 교육체계의 부족, 즐거운 추억 등 대인관계와 체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간호 실습 중 하나인 보건소 방문간호 실습 경험 연구에서는(Oh, 2003) 기대와 불안, 대상자에 대한 인식이 생김, 방문간호사의 긍정적, 부정적 역할 모델, 자아성장의 계기 등을 보고했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 지역사회 간호의 방대함, 독립된 의료인, 여유로움, 재미있음, 그리움과 같은 추억은 또 다른 경험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보건진료소 실습은 대상자 보건교육, 가정방문, 상담 및 의뢰, 서비스 제공, 보건사업 기획, 정보수집 등의 다양한 일차보건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으로 개개인의 건강문제, 응급상황에 관심을 갖는 임상문제와는 다른 거시적이고 예방적인 활동과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기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교통수단의 발달, 지역주민의 종합병원 선호, 농어촌 인구 감소 등의 변화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중요성과 역할에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또한 간호학생 중 보건진료소 실습을 경험하는 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최일선에서 다양하며 독자적인 일차보건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의 역할을 간호학생의 관점에서 실습경험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보건진료소 실습경험 중 구체적인 업무와 방법에 대한 혼란으로 막연하게 던져진 느낌을 받는 것이나 실습내용의 단순성, 실습기구의 고장 및 부족, 거리와 교통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었다.

보건진료소 실습은 간호학생의 실습 영역 확대의 기회가 되며 농어촌 지역의 일차보건의료, 노인보건의료 서비스 개발, 노인간호를 개별적, 지역적 접근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실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보건진료소실습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 간호학생의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초점집단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보건진료소 실습 경험이 있는 일개 전문대학 간호과 2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남학생 9명, 여학생 13명의 총 22명이었다. 초점집단은 여학생 집단 1개, 남학생 집단 1개, 남녀 혼합집단 1개로 구성하였다. 초점집단 면담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1달간, 한 집단 당 1~2회씩 시행하였고, 1회당 집단 토의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은 Colaizzi (1978)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보건진료소 실습 경험의 의미는 7개의 주제모음, 14개의 주제, 31개의 하위 주제로 나타났다. 7개의 주제모음은 경험 넓히기, 인간의 정을 느낌, 보람, 아쉬움, 힘듦, 새로운 인식, 즐거운 추억이었으며, 14개의 주제는 자율적인 실습, 전인적 실습, 관계형성, 노인에 대한 연민, 배움, 성장, 역량의 한계, 교육체계의 부족, 막연함, 불편함, 편견지우기, 색다른 간호사의 모습, 진로에 대한 관심, 여행 온 기분이었다. 31개의 하위주제는 '경험 넓히기'에서는 능동성, 생동감, 두려움, 책임감, 총체적 접근, '인간의 정을 느낌'에서는 친근함, 감사함, 이별의 아픔, 환경의 열악함, '보람'에서는 의사소통 방법, 삶의 지혜, 간호의 본질, 뿌듯함, 자신감, 반성의 계기,로 구성되었고, '아쉬

움'에서는 지식의 한계, 최선을 다하지 못함, 실습내용의 단순성, 실습기구의 고장 및 부족, '힘듦'에서는 던져진 느낌, 열악한 실습지 여건, '새로운 인식'에서는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 지역사회 간호의 방대함, 지역사회의 베풀목, 강인함, 독립된 의료인, 자신의 미래 설계, '즐거운 추억'에서는 편안함, 여유로움, 재미있음, 그리움으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의 보건진료소 실습경험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와 자율적인 실습을 통하여 보람을 얻게 되고,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간호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재구성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간호, 특히 보건진료소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와 적응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효율적인 실습관리를 위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지역사회간호 실습과 임상실습, 또한 다른 지역사회간호 실습과 보건진료소 실습의 차이점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Blainey, C. G. (1980). Anxiety in the undergraduate medical-surgical clinical stud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8), 33-36.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Dunn, S. V., & Hansford, B. (1996).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1), 1299-1306.
- Han, J. S., & Shim, M. S. (1999). A study on the community nursing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Central Journal of Medicine*, 64(1), 109-115.
- Keelhammer, K., Hart, A. L., & Keck, J. F. (1990).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anxiety 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9(4), 183-187.
- Kim, I. S. (1997). A Q-Methodological study on the community nursing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8(1), 133-143.
- Kim, S. J., Kim, H. J., Lee, K. J., & Lee, S. O. (1999). *Research methodology of focus group*. Seoul: Hyunmoonsa.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December 17). Results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survey. Retrieved June 8, 2010, from <http://kostat.go.kr>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hat, G. (1996). Stress and coping: First year nepalese nur-

- sing students in clinical setting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5(4), 163-169.
- Moon, M. S. (1998).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Sociality of Nursing Education*, 4(1), 15-27.
- Oh, J. J. (2003).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 in public health center.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4(2), 299-311.
- Oh, K. S. (1974). Key note speech: Process of the nursing education in clinic. *The Korean Nurse*, 13(6), 47-51.
- Pagana, K. D. (1988). Stresses and threats reported by baccalaureate students in relation to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7(9), 418-424.
- Park, J. M., & Lee, S. J. (2002). Evaluation of community health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at public health center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1), 161-170.
- Park, J. M., Lee, S. J., Min, S. Y., & Park, S. K. (2004). Nursing student's experience in visiting care practic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5(2), 323-331.
- Sohn, S. K., Chung, B. Y., Chung, S. E., Park, J. M., & Lee, S. Y. (1997). A study of the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of Nursing*, 3, 59-77.
- Suh, M. S., Kim, M. H., & Chon, M. Y. (1996).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clinical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of Nursing*, 3(1), 128-140.
- Sung, K. W. (2003). Satisfaction of community practice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 Academy Sociality of Nursing Education*, 9(1), 41-50.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red experience*. Canada: The Althouse Press.
- Woo, S. H., & Park, Y. S. (1995). The phenomenological study of school health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6(2), 161-172.